

광주시, 코로나19 2차 추경안 편성 착수

고강도 예산 구조 조정...이달말 의회 제출 방침

경상비 10% 절감, 코로나로 취소·축소사업 정리

광주시가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안을 마련하려고 강도 높은 예산 조정에 착수했다.

6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6일 개최하는 시의회 회기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받기로 하고 실·국별 사업비를 검토 중이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부서별 신청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회기 전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관련 사업비는 물론 일반 현안과 관련한 추가 사업비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재원 마련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20%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시가 열악한 자치구 재정 형편을 고려해 자치구와 분담하지 않기로 하면서 600억원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용섭 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은 이날 오전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생계비 신청 관련 자치구별 준비 상황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논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설명하고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정부의 긴급재

난지원금을 자치구에 분담시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상경비 절감,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사업 정리, 집행 부진사업 조정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시민을 지원하는데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광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되면서 일선 현장의 직원들과 공직자들이 주말도 없이 노고가 많다”고 격려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나눔과 연대의 정신으로 뚝돌 뚝돌 잘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생계

비 지원 신청과 2주 이내 신속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금은 시민이 고통받는 비상사국인 만큼 이미 편성된 예산 중 경상 경비 10%, 취소·축소된 행사 운영비, 국외 여비,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6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시·자치구 영상회의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이 5개 구청장들과 안건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국 최초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학생가정 공급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04억 긴급 투입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를 학생가정에 공급한다.

도는 6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 지원 사업을 전남도교육청과 협업체 도내 26만여명의 학생 가정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을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 사업으로 대체해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04억원을 긴급 투입, 집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초·중·고교 개학일의 4차례 연기와 선별적 온라인 개학, 기약 없는 오프라인 개학 등으로 학교급식이 40여일 이상 지속 중단됨에 따라 위기에 빠진 학생들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해 긴급 지원키로 한 것이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 사업은 도내 어린이집을 비롯 유치원, 초·중·고·특수교 학생을 대상으로 곡류, 채소류, 과일류 등 전남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로 구성된 학생 1인당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공급한다.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분을 제외한 도비와 시·군비 보조금만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1인당 2만4천원 이내의 꾸러미로 공급된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품목은 각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회에서 결정되며 학교는 학부모 등의 절차를 거쳐 학생 주소지를 시·군에 제공하고 시·군 57개 공급업체는 꾸러미를 제작해 각 학생 가정으로 배송하게 된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학교 오프라인 개학이 5월까지 연장될

경우 추가 공급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대상은 학교공급용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다.

2019년 한 해 동안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은 곡류 8천499t, 과일류 1천232t, 채소류 3천905t 등 총 8천499t이 공급 지원됐으나 올해 공급 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도는 학교급식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 양배추, 대파 등 저장성이 낮고 판로 확보가 시급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도 우선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가적 재난시기에 전국 최초로 시도한 친환경농산물 가족꾸러미 사업이 코로나19 극복에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며 “전남이 전국의 시범 모델이 돼 국책사업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AI 산업·블루이코노미 등
광주전남연구원 집중 연구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전남 블루 이코노미 등 지역 핵심 사업 전략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두 핵심 과제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 성격의 연구센터를 신설해 5~8명의 연구진을 투입한다.

시·도 실무부서,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등 기관과 협업체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박재영 원장은 “광주와 전남의 핵심 사업에 연구원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우선 인공지능, 블루 이코노미 기획 연구를 시작했다”며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구 정책, 섬 발전 정책, 지역 상생 등 현안 연구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경북서 온 60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남대병원서 30일만에 완치 퇴원

코로나19 중증환자로 분류돼 전남대병원에서 인공 심폐 장치를 이용한 치료까지 받은 경북 거주 60대 환자가 30일만에 퇴원했다.

6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격리된 확진자 중 중증도가 가장 심해 회복을 확신하기 어려웠던 A씨가 지난달 30일 퇴원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경북의 한 의료원에서 이송됐다.

당시 바로 기도 삽관·인공호흡기 치료 등 처치를 받은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의료진도 호전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입원 5일째에는 폐 병변 진행으로 인해 인공호흡기만으로는 적절한 산소 공급이 불가능해져 에크모(ECMO·체외

막산소요법)를 1주일간 받기도 했다. 에크모 치료는 폐·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는 경우 체내의 혈관 두 곳을 삽관, 체외의 기계에 연결한 후 혈액 내에 산소를 공급해 순환시키는 치료법이다.

이날 열린 전남대병원의 코로나19 신속 대응팀 비상대책 회의에서 주치의가 퇴원 소식을 알리자 최일선에서 진료에 동참한 40여명의 참석자가 박수를 보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불안해하는 지역민에게 조만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또 하나의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송지기자

市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코로나19로 개학 연기기간, 비용 추가 지원 부담 완화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 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이 가능하고 야간·주말 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시간당 9천890원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에서 최대 85%까지 지원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학 연기 기간, 정부지원 확대 특례를 적용해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지원비율이 기존 85%에서 90%로, 120% 이하는 55%에서 60%로, 150% 이하는 15%에서 50%로 크게 늘어났다. 또 지원 기준소득 초과로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150% 초과 가정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5개 자치구에서 각 1곳씩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상담 대표전화(1577-2514), 5개 자치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민기자

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긴급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각각 30만원 혜택

전남도는 6일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민생지원 예산 255억원(도비 102억원, 시·군비 153억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달 소상공인 약 8만5천명에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보전함으로써 경영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13만5천개소 중 지급 대상자는 약 63%인 8만5천개소로 추산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각각 3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

불카드 등으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처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대상은 지난 3월22일 기준으로 도내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사업체다.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와 전남도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과 유흥주점, 태양광발전업 등은 제외되며 전남도에서 별도 지원한 택시종사자 긴급 지원에 포함된 개인택시도 제외된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시를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량많은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 공증 · 공사대금 · 각서 · 운송료
차용증 · 거래장부 · 계약서 · 통장 내역
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없음**▶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 할 수 있음)

- 채무자 부동산, 전세금, 신용, 주거대출, 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원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영업직
신입 · 경력직 모집

채권추심직
경력직 모집

***업계 최고대우함**

선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 **개인 ·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 **T/M직원 모집**
- **남 · 여 직원모집**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062-228-0990~1/HP 010-5679-0990
백운동·조대방면으로 남광주농협 인근신협3층

상표등록 제40-1371640호

KSC IAF KAS 한국시스템인증기관
KS Q ISO 9001 : 2015 / ISO 9001 : 2015
KS ISO 14001 : 2015 / ISO 14001 : 2015

ERES 첨단 과학기술의 실현
ERES Engine Recovery/Energy System

**엔진출력 향상
매연·소음·진동·연비 개선**

자동차, 화물차, 농기계, 선박이 새롭게 태어나다

엔진영양제 4~5만km까지 가능

매연 미세먼지 저감
연비향상 엔진수명 연장 엔진오일 수명 연장

진행중
향후계획
향후계획
향후계획

소음/진동 감소
윤전피로도 감소

출력향상
엔진부품 감소
주행성능 향상

e-ECO Season

010-5533-9410

1인창업 상담문의